

## 제3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2. 3. 16(금), 16: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조중열 부의장, 윤성승 의원, 이순일 의원, 이재호 의원, 이강준 의원, 이효철 의원, 이홍평 의원, 임정민 의원, 강희진 의원, 박윤규 의원, 김승권 간사
- 총13명 중 11명 참석 : 김진우 의원, 윤갑희 의원 불참

의장 강명구 : 성원이 되었으니 제35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신입 의원님이신 강희진 의원님 박수로 맞으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강희진 : 안녕하세요. 아주대 졸업을 했고 사실은 그동안 강의다 뭐다 해서 자주 다니긴 했지만 평의원회는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명구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계사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은 많지 않습니다. 개방이사 세 분을 3월 3일부로 모셨는데 개방이사의 성격상 모실 적에 대학평의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학사회의 각 구성원을 대표해서 이사회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만나 뵙고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대학발전의 방향을 논의하려고 모시고자 하였는데 세 분께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세 분 중에 신상협 이사님은 제가 따로 만나 뵈는 적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불문과 79학번이시고,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나오셔서 London School of Economics 명문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국제대학원에 교수로 계십니다. 만나 뵈었더니 중후하시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기대어 의견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제대학원장 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하였는데 강의와 외부 회의가

< 간서명란 >

의 장



있어서 못 오신다고 구구절절하게 죄송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곧 만나 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두 분 박상일 이사님과 최홍 이사님은 지난번에도 4년간 아주대학교 이사회에서 개방이사직을 역임하시며 학교를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은 저희가 추천한 분이 아니고 법인쪽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12분의 이사분 중에 3분이 개방이사 분이시고, 3분의 개방이사 중 법인과 아주대학교 교수회가 합의한 동창 신상협 이사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다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방이사 선임과정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재호 교수님이 지금 오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학생대표 임정민 의원이 안건을 4개 보내왔는데 그 중 2개 정도는 학생처하고 논의해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에 본인도 수궁해서 빼고 나머지 2개, 3차 추경 시 반영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 논의와 벚꽃 축제 예산 및 행정적 문제 이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해서 제가 여러 검토 끝에 토론할 수 있겠다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오시기 전에 쉬운 것부터, 벚꽃부터 할까요? 문제 제기해 주신 임정민 의원 말씀해주시죠.

평의원 임정민 : 학생대표로서 벚꽃 축제와 3차 추경에 대해 안건 제시했습니다. 현재 벚꽃축제 예산이 1천만원으로 잡혀있고, 조명도 올해는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간사 김승권 : 그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물어보신다면 전에도 말씀 드렸 다시피 저희 학생회에서는 연예인만 부르는 축제가 아닌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의 축제를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차치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하고 준비물뿐만 아니라 상금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콘텐츠로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낮 시간에 대학축제가 무엇인지

< 간서명 란 >

의 장



보여주기 위해 참관하는 형식으로 두세 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고, 초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 나눠주든지 해서 긍정적인 아주대학교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뿐만 아니라 벚꽃축제에 있는 벚꽃사진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함께하도록 해서 아주대학교를 알리고 아주대학교 벚꽃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평의원님들께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실제 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의원 임정민 : 저희들이 축제를 많이 해봐서 예산을 딱 자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학생회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다들 아시다시피 1천만원으로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연예인을 부르는데 있어서 연예인이 아니라 가설로 만드는 데에만 5백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백만원으로는 가수를 안 부르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이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1천만원이 적다가 아니라 행사 계획과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전반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제안을 하려면 플랜을 짜와서 몇월 몇일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이고 (안)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배운 사람의 자세도 아니고...

평의원 임정민 : 저희 계획은 1천만원 예산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의장 강명구 : 1천만원 예산이라면 그것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평의원회가 서로 아는 사이지만 그런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사실 이런 것은 평의원회 와서 논의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까? 이것은 총무나 기획이나 학교 부서와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는 이야기 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면 몰라도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이 안건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는 학생 측에서 내세운 이유가 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주민 또 학교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학생회의 이해관계에 걸친 문제는 학생처와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안건을 제안하신 이유가 이 사업을 하고 싶는데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대학평의원회가 중재에 나서거나 혹은 대학본부에 더 강한 의견을 표시해주기를 원하는 거라면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취지 중 하나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 학교 본예산 중에 그런 용도로 쓸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처 예산도 있을 테고,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취지라면 입학처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항목을 새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예산은 잡았지만 미처 디테일에서 잡지 못한 사용처가 있다면 학생 대표들이 그런 면에서 대학본부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예 예산에는 없는 항목이 필요하다든가 홍보의 필요성이나 홍보의 대상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든가 하는 학교발전과 관계된 사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 예산에서 적절한 항목을 찾지만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평의원 이효철 : 이 문제는 보니까 시점이 4월초가 되니까 개교기념일도 있고, 개교기념행사도 확인해보고 거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면 논의하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예산 부족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미 예산 자문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를 늘려라 하는 것 보다는 행사와 연계되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평의원님께 드린 게 정확히 잘 몰라서 일단 말씀 드린 거고, 2개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수공을 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 간서명 란 >

의 장



사실 저도 긴가민가한 면이 있었지만 일단 여기에 제안을 해서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해서 학교에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4월에 벚꽃축제가 있고 5월에 대학축제가 있고, 벚꽃으로 치자면 도청 벚꽃이 훨씬 화려하고 그렇죠. 하지만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학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순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등록금도 깎고 긴축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면 각 부서 예산을 취합해서 힘도 합치고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제 생각에도 제일 먼저 학생처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학생처와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평의원 임정민 :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우선적으로 1천만원 사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학생처 예산에서도 학생을 지원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어제 교수 윤리강령을 선포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엄하고 되돌아보고... 이런 게 대학사회의 기본입니다. 제가 만약 교수회에서 이런 돈을 쓸 거라면 당연히 감사부터 받고 의안 제출하고 한참 질책도 받고 수정을 해서 이래서 겨우 완결된 (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좀 더 좋은 뜻이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차 추경 관련 한번 말씀해주시죠.

평의원 임정민 : 제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로 이정 사인 제작과 보도블럭 일괄교체에 대해서 학생대표자들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럭의 전면적인 교체는 오히려 등록금을 낭비시킬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천관 옆에 보도블럭 공사가 된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

< 간서명 란 >

의 장



해서 3차 추경 예산으로 들어갔다고 저희가 듣고서 이렇게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했던 부분인데 3차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립금을 남길 수도 있던 부분이었는데도 3차 추경으로 해서 등록금이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에이스 사업으로 인해서 공간 세 군대를 개조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한 공간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신학생회관 2층에 있던 GL이라는 공간이 개조되어서 다른 공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신학생회관 2층에 있는 공간이 아예 비어있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조를 했다면... 에이스사업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3차 추경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뺏아서 하나의 노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보도블럭 교체 건으로는 예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논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에이스 사업 관련 신학생회관 공간사용 문제는 공간 자체로만 치자면 저희 학교 공간위원회도 있고 해서, 에이스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만약 학생회관의 공간문제로 치부가 된다면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맞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사실관계부터 확인 해주시죠.

간사 김승권 : 3층을 말하는 건가요?

평의원 임정민 : 2층에 수학과 방 옆에 있던 공간입니다.

간사 김승권 : 에이스 사업이 선정되어서 신학생회관 그쪽 라인을 에이스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약대가 나가면서 성호관 공간을 기초교육 대학으로 만들었거든요. 학생처에서 그 공간을 공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실 공사 한번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쪽 공사를 하려면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 공간은 지금 2년 밖에 안 되어서 깨끗한 공간이고 해서 학생처에 부탁을 드린 것은 돈 4~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공간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봐서 정말이 공간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그때 다시 공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 간서명 란 >

의 장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처에서 총학생회와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주시네요?

평의원 임정민 : 그것은 이미 세미나실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동의를 했지만, 2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의원 임정민 : 우선 보도블럭 관련해서 논의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이해를 못해서 사실관계 확인 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차 추경이면 2011학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의원 임정민 : 네, 맞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2011학년도 3차 추경에 잡아서 시행한 사업의 내용이 타당했느냐 하는 게 질문 내용인가요?

평의원 임정민 : 네

평의원 이순일 : 2011학년도에 불필요한 사업을 목격했다면 2012학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했으면 우리가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11학년도 3차 추경은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반영할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되돌릴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산 시점을 눈앞에 놓고 3차 추경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적기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을 기억해줬다가 다음 예산에는 편성하지 말라는 의견을 남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작업에 대한 타당성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는 하는 정책적인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로 논의를 바꿔야지 하나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의회가 이 사업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등록금 3% 인하 했나요. 말끝마다 식사하시는 것도 3% 얘기, 1천만원도 3% 얘기, 다 돈 얘기를 비추어 가면서 하는데... 언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치우고 시 예산 쓰는 게 대한민국 주특기 아닙니까? 학생들 눈에도 멀쩡한 거 바꾸는 걸로 비치는 거예요. 만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니까 불만이 팽배한거지, 3차 추경 지난 것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학교가 3%에 목매지 말고 학생들한테도 너그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자, 시기를 잘 만났다 잘못 만났다 이게 아니라 불만 때문에

< 간서명 란 >

의 장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임정민 : 적기를 놓쳤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블럭 교체가 3차 추정 예산이었다는 것을 듣고, 그렇다면 제가 왜 등심위에 들어갔는지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등록금심위 위원회는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남은 예산이 없도록 만들어서, 학생들의 등록금 3% 인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하가 될 수도 조금 덜 인하가 될 수도 있었던거고... 사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조직일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불필요한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기록을 남겼습니까?

평의원 임정민 : 네,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사를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회의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왜 3% 등록금 깎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학생들과 합의가 된 것이냐 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도 합의의 근거와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회의록을 꼼꼼히 남기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학평의원회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회의록을 가지고 예결산 심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된 게 있으면 그 합의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상 회의 자료를 정확히 남기시고 그게 다시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서 꼭 확인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의장 강명구 : 학생회가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등심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를 하고 심지어는 동영상을 찍어서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도 편하고 학생회도 훨씬 부담을 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애를 쓰면서도 소통이 안 되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꼭

< 간서명 란 >

의 장





가운데 무슨 Deal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대학사회에 불신을 조성하니까 뭐든지 건강한 긴장관계 하에서 공개적이고 정당하게 잘 치러지면 저희들도 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엔 그렇게 한번 하시죠.

평의원 강희진 : 지난번에 등심위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안)을 놓고 등록금 인상 인하율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도 당황했던 게 무엇이나 하면 예산(안)을 놓고 등록금 인상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합의를 해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예산을 생각했던 것 보다 3% 깎았으니까 예산을 줄어들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총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임의대로 재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껏 사업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더니 피드백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우선 순위를 다시 학교에서 재조정을 하는 상황인데다가 평의원회나 등심위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신 거예요. 이런 매커니즘 속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때 등심위에서 얘기된 게 원천관 옆 인도공사는 안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을 때 학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학생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보도블럭 공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설명이 다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걸으로 봐서는 3억짜리 공사가 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지만 거기에는 토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목이 기본적으로 1~2억 깔고 들어가서 학생들이 보는 공사비에 비하면 실제로 나오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걸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무 조금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몇 년 동안 미뤄진 공사인 데다가 구조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캐치해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설사 알아들었다 해도 의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전달되지 못해요. 만약 어떤 학생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그런 의혹이 생기면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 사업의 취지는 뭐고 사실은 몇 년 동안 추진해오다가 계속 사업이 돈이 없어 못하다가 더 이상은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는 편성된거다 하는 이런 취지

< 간서명 란 >

의 장



가 있으면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이든 1억 이상의 어떤 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식의 사업취지라든가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학교도 이런 쓸데없이 소모적으로 변명을 해야 한다던가 학생들도 저 친구가 질문한 것을 다른 친구들도 계속 질문을 하면 학교에서도 사실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낭비가 되니까 오히려 어떤 사업에 대한 취지 같은 공개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될 것 같고, 학생들도 결국 그런 공사를 왜 하는지 알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런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사업이 그래요. 이런 사업하려고 3억 하겠습니까 하면 눈으로 그 사업이 끝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사업을 설계한 사람 외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실은 누구도 논하지 못해요.

의장 강명구 :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긴장관계 하에서 사실관계를 항상 확인할 수 있고 서로 그런 것들을 제도화 시켜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자는 게 핵심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학교 행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개, 건강한 긴장관계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이 그런 것이 되겠죠.

평의원 강희진 : 오히려 평의회에서 학생들이 저런 것들에 불만이 있다는 것의 핵심이 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고 학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평의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하기 전에 '이래서 계획이 이렇다' 하는 설계도면이라도 간단하게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건설 쪽에서 전공한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설계도면이 되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거 말 되네' 이렇게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밑에다 뭐를 달아놓을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이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은 설계도를 봐도 Before-After를 봐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실 전공한 친구들은 자기들이 빨리 캐치해서 학교 말이 맞다 혹은 틀리다 하는 자기네끼리의 의사소통도 훨씬 원만해 질 수 있죠. 막연하게 불만을 갖는 다기 보다는...

의장 강명구 : 정리하자면 정보공개 시스템을 확충해 달라.

평의원 강희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정보라도... 학교가 어떤 취지로 그 비용을 지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라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갖게끔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정식으로 제도화 시켜달라는 평의원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동의나 제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평의원 박윤규 : 그것보다도...

의장 강명구 : 잠깐만요. 이거 마저 하시고 하시죠.

평의원 박윤규 : 아니, 이 말이 어차피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쭙보고요. 원천관 인도 공사에 대해서 항의할 데가 여기 외에는 그렇게 없습니까?

평의원 강희진 : 사실은 얘기를 계속 해왔죠.

평의원 박윤규 : 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평의원 임정민 : 그게 이미 반영이 되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의원 박윤규 : 그건 너무 무기력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끌고 와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듯이 앞으로는 학교 측과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그 회의를 이런 발언록 식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공사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도 발언록으로 회의록을 남기면 역시 거기 실릴 겁니다. 그게 공개되면 학생대표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어디에 가면 학교 측과 협의한 모든 회의는 발언록 형태의 회의록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도 바로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학평의원회에서도 5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 회의록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이게 몇 년 쌓이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학교도 자료 준비와 합의 이행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면 그 다음 해에도 그 숫자가 확인이 되고, 이게 몇 년 누적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자꾸 의결이 늦어지는데 한마디 말씀 드리자면 학교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을 했고 저희는 일단...

평의원 강희진 :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학교 측의 예산(안)이 밖으로 유출되면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사실 회의록은 다 남겨서 다음 회의 갈 때에

< 간서명란 >

의 장



는 회의록을 돌려서 다 싸인을 받고 남겼는데, 다만 등심위에서 나와 있는 예산(안)이 밖으로 나가는 그건 곤란하니 놓고 가라고 얘기를 한거죠.

평의원 임정민 : 그래서 경희대와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아까 저희가 토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청 부분이 없었거든요. 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와 학생 또는 협상과정에서 회의를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것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혹시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부의장 조중열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도 주차하고 등등 공사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은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건물을 짓고 나면 이게 어떤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이것은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어떤 목적으로 짓는다 그리고 여기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 글을 같이 올려주시면...

평의원 강희진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Before-After를 놓고 그 밑에 의견을 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화 하는 게 학생들도 그렇고 좋을 것 같아요.

의장 강명구 : 너무 당연한 건데 지켜지지 않는 거죠.

평의원 강희진 : 그래야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원래 취지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조중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예시로서 건축비가 예시로 들어간 것인데, 일정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 평의원회에도 총무처장님이 나오셔서 건축설계위원회와 시공사 선정위원회에 대학평의원회나 대학 관계 위원회의 대표자를 받아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일정한 공사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록을 남겨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안전의 핵심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시설 개보수에서도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기준선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입찰공사는 반드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점부터

< 간서명 란 >

의 장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그런 자세한 사항에 있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공사가 있고 길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원관리, 개보수 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은 큰 틀에서 이와 같이 제도화하는 것으로 안전을 상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알고 총무처장님과 총장님께 보고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하나 더 건의 드릴 것은 지금 이런 건의가 들어왔으면 다음번 평의원회 때 반드시 그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학생의원이 이런 안전을 올렸을 때 발의한 것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이 같이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의하셨고 이미 시간 여유도 있잖아요. 학생이 얘기하는 것과 학교가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느 쪽 얘기도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회의가 될 수도 없고 결정은 당연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장 강명구 : 기획팀장님, 그때 등심위 들어가셨습니까? 등심위는 어디 소관이죠?

간사 김승권 : 예산팀입니다.

의장 강명구 : 물론 이번에는 임정민 의원이 저한테 주신 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유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가볍게 보신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좀 불찰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안전이 올라왔을 때는 관계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임정민 : 네, 다음에는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3차 추경시 반영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제도화에 대한 제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안전은 개방이사 선임 과정 및 향후대책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2월이 되어서 개방이사 3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했

< 간서명 란 >

의 장



던 분은 한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아주대학교 평의회회 대표 중 한분으로 참여하신 이재호 의원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이어서 저희들의 토론과 견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시죠.

평의원 이재호 : 앞부분의 일들은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는 평의회에서 사회대 김준한 교수와 저, 두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했고 아주자동차 대학에서 한 분, 재단에서 두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섯 사람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례에 따라서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했던 두 사람 중 연장자 김준한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개방이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개방이사는 이 사회의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고 더불어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한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 중간에 각자 적절한 분들을 추천을 하고 모두 취합을 하여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였나하면 추천위원 1인당 최대한 3명까지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재단에서 추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자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추천이 이루어진 것은 자동차대학에서 3명, 제가 3명, 김준한 교수가 3명을 추천했고 재단에서는 재단대표 두 분 중 한 분이 두 분을 추천하여 도합 11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동문 중 한분을 이사회 멤버로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해 저희도, 재단 쪽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추천위원이 추천한 11명과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을 추가하여 12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 공동추천이다 형식상으로는 추천위원 중에서 한 분이 추천하는 것이 좋으니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결국 숫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7명 추천하고, 자동차대학에서 3명, 재단에서 2명 이렇게 추천을 하였습니다. 개방이사 자리는 3자리가 있고 저희의 임무는 두 배수인 6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6명을 어떻

< 간서명 란 >

의 장



게 추천할 것인지 상당한 논란과 토론이 있었고 저희가 합의한 방법은 3개의 개방이사 자리를 하나하나 영역별로 구분해서 생각하자였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대학과 동문회, 두 번째 영역은 의료계. 이렇게 정한 배경은 현재 12분의 이사 중에 의료계 출신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중요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econd opinion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균형이 맞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이든 회계가든 아니면 법률이든 이쪽관련 분야의 사람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 분야로 이름표를 붙여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나눠놓고 그중에서 두 배수를 추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천을 한 것은 학교와 동문 분야에 있어서는 평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분, 동문에서 추천하신 분 한분 이렇게 두 분을 추천했고, 의료계에 두 분을 추천했고요. 대학운영과 관계되는 두 분은, 한 분은 박상일 이사 또 한분은 최홍 이사 즉 지난 4년간 개방이사였던 분들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상 두 이사 중 한 분은 재단에서 추천을 한 것이었고 또 한 분은 자동차대학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만 사실 이 분들은 4년 전에는 두 분 다 재단에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대학에서 두 분 중 한분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6분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분야별로 추천한 것이 이사회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6명을 한 덩어리로 놓고 그 중에서 3분을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 결과는 동문에서 추천한 신상협 교수, 지난 4년간 개방이사였던 박상일 이사, 최홍 이사 이렇게 선임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추천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추천한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선정결과는 1기 때 재단에서 추천했던 두 분이 연임을 하셨고 나머지 한 자리는 동문회에서 추천한 분이 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추천위원회에서 세 분야에서 한분씩 뽑아달라는 것은 재단에서 동의하신 겁니까?

평의원 이재호 : 동의했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재단 측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나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만약의 우려를 첨가해서 합의했는데 마음대로 뽑았다는 것입니까?

평의원 이순일 :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 겸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이사는 1기 개방이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박상일 이사는 그전에도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원래 1기 때도 기존에 이사회 멤버였던 분을 개방이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상일 이사는 원래 기존 이사회 멤버였던 사람입니다.

의장 강명구 :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연임이 되셨으면 이사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아주대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활동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그때도 분명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방이사에 맞느냐 지적을 했었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앞으로 2년 뒤 4년 뒤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분들은 또 처음 듣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임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으니까 다음에 차기에 선임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안)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강명구 : 혼자 발품을 팔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주대학교 이사회에 좋은 분이 들어가서 가깝게 연결도 시키고 혹시 하다가 장관되면 덕도 보고 그럴 분들을 찾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두 세분은 발품을 팔아서 간신히 어렵게 설득을 해서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구조 안에서는 어떠한 지혜를 짜내더라도 재단이사 두 분이 있고 자동차대학이 있는 이상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을 감시하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재단 측에서 하는 것은 문제다. 사립학교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두 배수 뽑으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을 또 뽑습니다. 실제로는 아주자동차 대학이 재단과 거의 같이 행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해도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부의장 조중열 : 그런데 지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개방이사가 없는

< 간서명 란 >

의 장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세분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앞으로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는 것을 오늘 결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그것은 자폭수준입니다. 있는 것이 낫겠죠.

부의장 조중열 : 지금상황에서 개방이사가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 교과부-아주대학교평의회-아주자동차대학평의회-아주대학교법인. 이 4자 간에 한 달반이나 두 달에 걸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문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 제가 머리에 쥐가 날정도로 공문서를 보내고 받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2011년 2월에 아주대학교 대학평의회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했던 질문은 아주대학교는 6400억 예산 630명 교수다. 아주자동차대학은 88억 29명 교수다. 대표가 2:1이 말이 되느냐, 20:1이 넘는다. 이것을 재구성하게 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2011년 2월 교과부 공문에서 문제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자동차대학 김정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모셨습니다. 모시기전에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니까 전권을 위임받아 오십시오 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는 20:1이니까 4:1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재단4 우리4. 돌아가셔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단은 우리와 협의를 안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교과부는 당신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왔습니다. 문제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교과부의 레터를 가지고 재단에 보냈더니 바꿀 의향 없다 빨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재단과 힘겨루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교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가 전혀 안 통합니다. 이 위에 6쪽에 공문을 넣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아주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내는 교원대표 평의원 선

< 간서명 란 >

의 장



출판권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이 공문 자체를 접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아주대학교 평의원회는 자문기구 이므로 총장이 위촉했으므로 총장을 통해서 공문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공문으로 주십시오 했더니 전화로 총장 통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제가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이면서 평의원회 의장이인데 이런 대접받고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기구가 학교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어디에 항의할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재단 측 인사가 한분은 이영현 상임이사고 한분은 법인팀장님 임홍식 팀장입니다. 이 두 분은 명령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을 자율적으로 발표하기 힘들다 해서 상하관계 있지 않은 분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들게 지내왔던 추천위원회 구성 이전의 상황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조금 전에 확인한 내용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간사 김승권 : 그 전에 감사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박상일 이사가 감사였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이사와 감사가 다르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사회에 앉아계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분을 재단이 추천하고 1기 개방이사로 임명을 할 때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평의원 박윤규 : 사립학교가 여기 뿐만 아니라 이 이사진을 꾸미는데 있어서 국가적인 면에서는 야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다 내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사장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이것을 내놓았을 때는 합법적인 것을 내놓지 전혀 불법적인 것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두들겨서 문이 안 열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안하면 안하고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난번에 회의하다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산 자문 하다가 나갔지요? 사실 뭐 가는 것도 풀볼건 이지만 가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

< 간서명 란 >

의 장



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의를 해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아까 이재호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결론은 세분을 추천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의원 강희진 : 그렇게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조중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4년 후에 가서 얘기해봐야 그때가면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 지금 규정을 바꾸든 권고안을 내놓든, 지금 경험한 우리가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의견을 내든, 우리가 여기서 fix를 시켜서 Before-After 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규정을 바꿀 것인지 시스템을 바꿀 것인지...

평의원 박윤규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평의원회를 만들어 놓은 국가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강명구 :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그렇죠. 거기에 직접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제가 이것을 한지 3년째 지켜보면 하나도 마무리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들어 봤자 아까 학생들에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공개해라. 공개해봤자 버스는 벌써 떠나고 이미 지나갔는데 뭐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또 있을 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남겨서 다시 뜯어보면 벌써 버스는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의원회가 과연 존속이 필요한가. 이사회하고 대학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낭비이고 결론은 결론 없는 회의는 하지말자 이겁니다.

의장 강명구 : 대학평의원회 기능 중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다음 중요한 권한이 예결산 자문 의견 내는 것입니다. 저희 자문의견을 줘야 교과부로 올라갑니다. 학칙 개정이라든가 학교 제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전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립학교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개방이사가 설

< 간서명 란 >

의 장



사 세 분이 들어가셔도 다수결로 결정하면 이사회가 지금 결정 하는 것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사립학교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것이 이유라면 모를까 의결사항이 바뀌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우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신상협 개방이사 선임을 통해 본 개선의 가능성입니다. 최소한 아주대학교동문회가 충분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선이 조금이나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문들의 의견까지는 이사회에서 무시하지는 못하니까 이 분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대학평의원회에는 이렇게 동문대표도 계시고 학생대표도 계시고 교수대표도 계시고 직원대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거기에 충분한 무게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의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동문회에서도 이번 예를 보시고 동문들이 의견을 내니까 동문이사가 들어갔다, 다음번에는 개방이사가 한분 더 들어가면 더 투명한 운영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동문회에서도 취지에 맞는 개방이사 선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등록금심의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실제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논의되지 않으면 큰 힘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역시 개방이사가 한 사람쯤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힘을 모으면 실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가 불안할 정도로 다수는 아니고 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게 개방이사 보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신상협 이사가 들어가신 것만 해도 진전이라고 보고,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시오. 학부모대표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이지 이사회 의결사항에 영향을 직접 주자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법인에 설명해 주시면 한분쯤은 더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조중열 : 저는 작년 12월부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말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나 하면 동문회에서 한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오니까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연고대의 경우에도 개방이사 없이 학교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문회의 한자리를 위해서 개방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일 교수의 의견은 앞으로도 개선이 될 것이니까 지켜보자는 인

< 간서명 란 >

의 장



식이신데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4년 뒤를 위해서 권고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의 개방이사, 개방 감사를 없애는 것이 평의원회의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학교를 위해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연세대는 개방이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각 종교재단에서 추천하는 몫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개방이사제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부의장 조중열 : 현재는 없다는 거죠?

의장 강명구 : 연고대와 아주대학교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인이 있냐 없냐. 거기는 벌써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는 좀 전 이순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평의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무시하니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히려 이 건에 있어서는 교수들은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동문은 동문대로 직원 분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개방이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한다는 원칙적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의원회와 거리를 두고 공문도 접수 안하는 현 상황에서 약간 우회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장 강명구 : 구체적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직원, 동문, 학생, 외부인사분들 각각 청원 비슷하게 써주시면 저희 교수회와 합쳐서 대 여섯 개를 접수가 되든 안 되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회가 기능을 안 하니까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자마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야만 하는 것과 이게 타당하다는 것과 법은 다릅니다. 사립학교법이 합당한 법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안을 내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취지, 즉 학교가 과연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견해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영등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각자의 생각입니다. 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 간서명 란 >

의 장



목소리가 쌓이고 공론화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뀌는 것이 법입니다. 평의회가 권리가 있든 없든 평의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고 개방이사도 지금 모순되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재단이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수단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큼니다. 지금 평의회에서 적어도 어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적어도 추천에 대해서 기존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추천권을 없애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음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점점 공론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 평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정관 개정을 통해서 재단은 추천위원회에 인사를 보내지 말자라고 저희 공통된 의견을 문서화해서 보내도 되겠습니까?

평의원 강희진 : 지금 이것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연설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보낼까요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평의회입니다. 이사회하고 평의회가 모든 것을 합친 예산을 자문하거나 결정하는 곳이지 우리가 안건을 발의해서 들어주십시오 하는 부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는 학생들이 구호해서 이거 좀 들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초라해지지 않나 이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저는 1년 동안 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이런 문서를 이사회 사무국에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장 강명구 : 평의회 의장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게 됨을 당하는 겁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이 있는 회의를 하자 이겁니다. 결론이 없는 회의를 가지고 탄원서만 내는 부서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부위원장 조중열 : 의원님께서 개방이사 제도에 대해 제안을 해주십시오.

평의원 박윤규 :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5시30분까지 끝내야 됩니다.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

< 간서명란 >

의 장



해 주십시오.

평의원 강희진 :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저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모든 것은 이사회가 쥐고 있습니다. 그 중의 1/3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지금까지의 방식은 부분별로 3개의 부분에 3개의 자리에 2명씩해서 추천을 했더니 사람은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넣을 수 있냐 이겁니다. 결정하는 방법.

평의원 이재호 : 추천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정하면 따라야 합니까?

평의원 이재호 :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의장 강명구 : 나중에 사립학교법하고 정관하고 강희진 의원에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법인이 위법한건 아닙니다. 2배수 추천된 위원 중에서 1배수 고른다 이것만 있지 나머지 신사협정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개방이사 3분 중에 2분은 위임되신 것과 비슷한 것이고 한 분이 교체되었는데 누가 교체되신 것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김용덕 이사입니다. 아주대학교 평의회에서 추천해서 만장일치 1순위로 되신 분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말씀하시는 과정을 듣고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감사로 재직하던 분을 개방이사로 임명하신 것은 법률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2년 이상 이어나 감사로 재직되어 있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개방이사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그에 따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감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가는 것은...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윤성승 : 현재 감사에 재직하는 사람이 바로 개방이사로 갈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이사하고 왔다갔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문을 평의회 의장님 명의로 했는데 총장명의로 온 것이 아니어서 접수를 거부했다는 것이 총장의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총장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형식논리로 접근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도 형식논리를 접근해서 앞으로는 위촉장을 총장명의로 받지 말고 대학이름으로 받고 대학의 독립된 기구로 해서 의장명의로 바로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바로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런데 위촉한다는 것도 정관에 되어있습니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장께서 위촉장을 주신다고 하시길래 임명장인줄 알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정관에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묘하게. 이사장이 법을 전공하셔서 수준급이십니다.

평의원 이재호 : 윤성승 의원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안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몇 번 해보고 느끼는 것이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TA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TA예산이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 TA예산 지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명의를 빌려서 사실상 그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 TA조교 급여를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 자체가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과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 그 점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숫자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식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감사 진행이 매우 취약합니다. 예산을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6400억 예산을 세부로 쪼개면 산더미같이 높아지고 일일이 다 못합니다. 이런 필요한 사항들은 중간

< 간서명 란 >

의 장





중간 체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건은 공식적인 자료요청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다음 회의 때 TA급여 지급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는지 확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윤성승 : 확인 자료는 단과대학별로 지급되는 명단이 있게 되면 사실상 그 중에서 명단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획팀 이수영 :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남아있는 것은 돈이 지급된 사람들의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명단을 주시면 단과대학별로 아시는 분들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자기가 소속된 단과대학에서는 확인이 가능 합니다.

간사 김승권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오늘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개방이사 세분을 모시고 저희의 견해를 밝혀드리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세분이 오비이락인지 다 못 오시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수영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최홍 이사님은...

기획팀 이수영 : 최홍 이사님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이 어려우시고 박상일 이사님도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하시면서 확인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신상협 이사님은 수업이 있으시고 학기 초여서 일정이 좀 바빠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의장 강명구 : 오늘 저희가 회의한 내용과 관련사항을 첨부해서 개방이사 세분께...

평의원 이순일 : 의장님, 혹시 저희가 초청했다가 성사가 안 된다고 언제 초청했느냐고 모든 체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 급하게 초청 드려서 못 오신 것이면 그 분들이 오실 의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라는 겁니까?

의장 강명구 : 아닙니다. 저희가 3월9일 3월16일 어느 날 가능하십니까 라고 여쭙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사에 매인 몸이라 사장님이신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바쁘신 분들이면 한 달이나 두 달 후 예정을 잡으셔서 하면 안되니까?

의장 강명구 : 저희가 문제는 개방이사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면 저희가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저희 15명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의장님께서 우리의 약간 이러이러한 방향을 세분에게 공문 하나 보내드리면 어떻습니까?

의장 강명구 : 저희가 맞추려면 조찬회의를 해야 하는데 아침 일찍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는 새벽4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회를 보면 아주대학교 이사회인데 아주대학교에 한번 와보신 분이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평의원 강희진 : 이사회 하는 날짜로 평의원회를 맞춰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장 강명구 : 보통 금요일 아침 7시30분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는 평의원회도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방이사 세 분께서는 추천을 어느 쪽이 하셨든 간에 저희를 이사회에서 대표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꼭 만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평의원회가 아니라 평의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개방이사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우리 중에서 참석 가능한 분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의장 강명구 : 이수영 선생님, 기획팀장님, 저희가 취지를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와의 관계라고 해서 시간이 맞지 않다면 저희가 맞출 수 있으니까 다는 못나오더라도 비공식 간담회 수준으로 할 수 있으니 세분께서 맞춰주시고 웬만하면 아주대학교에 오셔서 한번 보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12년 3월 16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조중열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순일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이홍평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기 록	김승권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